

# 윤병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공약 발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민선 9기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공약했다.

윤병태 예비후보는 "2026년 1월 기준 우리 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섰다"며 "일상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주는 시내버스를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해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통 복지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2026년 1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만286명으로 집계돼 3만선을 넘어섰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공약은 민선 9기 출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 바깥에서도 문화, 건강,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빛가람동에 '어르신 청춘 놀이터'를 조성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스마트 경로당' 확대와 경로당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응급안전 시스템과 화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신개념 복지 플랫폼이다.

나주시는 지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4억3천만 원을 투입, 스마트TV와 무선인터넷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연결하는 스마트 경로당을 본격 운영 중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도 추가 선정돼 7억 4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확대에 속도를 낼 계

## 65세 이상 인구 3만명 시대 '버스비 걱정 없는 나주 만드다'

### 어르신 청춘놀이터, 스마트 경로당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한 '나주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획이다. 윤병태 예비후보는 "이미 민선 8기에서 일자리와 경로당 환경 개선, 치매 전수조사,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도 강조했다.

나주시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471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고 207억원을 투입해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지원 단가를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냉방기는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TV는 6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생활 편의를 높였고, 주·부식비도 월 10만원의 고정 비용에서 경로당 이용자 수에 맞춰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해 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이미유권 지원을 연 4만8천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50세까지 확대하는 등 체감형 복지를 강화해왔다.

노후 생활에 가장 큰 걱정인 치매 예방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치매 위험군 3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치매 조기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해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치매 돌봄 관리사를 파견해 인지 기능 강화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세 안심경로당 180곳을 운영하며 노년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나주를 완성하겠다"며 "효과가 검증된 정책 위에 일상에서 더 실효성있는 어르신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기동취재부

# 與전남광주통합시장 '격랑' 민형배·김영록·신정훈 3파전

민중화 동지인 신정훈·강기정 후보의 단일화 원팀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전은 3파전으로 재편되며, 경선 구도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 대 전남 단순 대결구도가 현실화될지, 캐스팅보트의 선택적 지지가 이뤄질지 지역구도에 촉각이 모아지는 가운데 결선 격인 결선투표 진행 시 2차 합중연원 여부도 중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예비경선 전부터 줄곧 2강2중1약 판세를 유지해온 경선 구도는 선두권을 맹추격하던 중위권 후보 간 1대1 단일화로 예측불허의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관계인 '8년 도배' 김영록 후보가 예비경선 과정에서 중도사퇴한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과 지난 24일 '원팀' 구성에 합의했고, 민형배 후보도 동부권 주자인 주철현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한 사실상 공동행보를 보여 본경선 구도는 3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현역 광주시장인 강 후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신 후보는 1964년생 82학번 동기 격동의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이끌어온 민주화운동 동지인데다 정치와 행정 현장에서도 오랜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와 단일화 가능성이 늘 제기돼왔다.

김 후보와 이 부위원장은 서석초·서중·광주일고 동문, 행정고시 선후배로 고위관직을 두루 거친 전통 관료 출신 행정 전문가고 민 후보와 주 후보는 기초단체장 출신 재선 의원으로 검찰 개혁과 자치 분권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신·강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2강 체제에도 크든 적든 균열이 예상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민형배·김영록 후보가 20%대 중·후반으로 양강을 형성하고, 강기정·신정훈 후보가 선두권을 추격하는 양상이다. 동부권 주철현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말쑥잡지 떨어져 있어 대세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광수 기자

다. 이에 따라 중위권 후보 간 캠프 대결 통합은 단숨에 지지율을 20%대로 끌어올릴 공산이 커 본경선이 예측불허의 3자 각축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본경선을 목전에 두고 1차 합중연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결선투표를 염두한 구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광주와 전남 지역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경선과 결선투표 모두 권리당원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는 가운데 일반 유권자와 권리당원수 모두 전남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다.

일반 유권자는 광주가 120만명, 전남이 156만명, 권리당원은 광주가 11만2000명, 전남이 21만명으로 추산된다. 유권자는 4대 6, 권리당원은 두배 가까이 전남이 많다. 본경선 주자 4명 중 3명이 전남 기반 후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 연고 후보자들의 표 분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도낙마한 후보들의 광주 지지 기반이 단일후보나 전남 특정 후보로 향할 개연성이 있고, 전남 의대나 주청사 문제 등 핫 이슈에 따라 지역 구도를 떠나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장인 강 후보가 '전남 의대 순천 배치' 카드를 꺼내들면서 동부권 표심을 일정 정도 흡수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차 합중연원도 관심사다.

본경선에서 과반득표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선 가상대결 시나리오와 경우의 수도 다양하게 양상되고 있다.

이를 의식해신지 김영록 후보 측은 신정훈·강기정 단일화 직후 두 후보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두 분의 단일화를 존중한다"는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신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쟁 캠프의 역선택 의혹과 이에 대한 당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국회의원이 구청 앞에서 '대리투표 불법' 팻말 든 까닭은?

### 與 정진욱 의원, 광주 남구청장 경선 불법투표 근절 홍보 경선 공방 격화, 지역위원장 이례적 행보에 해석도 '분분' 현직 후보 "불법 안 해" 반박 글... "공정 선거 캠페인일 뿐"

6·3지방선거 광주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이 시작된 31일 당 지역위원장인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구청 앞에서 '대리투표는 불법' 팻말을 들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펼쳐진 공방과 맞물려 지역위원장의 이례적 행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 의원은 "공정 경선 캠페인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남구청장 선거, 대리투표 등 부정 선거를 막아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게시 사진에는 정 의원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핸드폰으로 대리투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문구가 든 팻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시·구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연락처도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남구청 앞 백운교차로·푸른길 공원 등지에서 홀로 팻말 든 채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팻말 문구만 놓고 보자면 선거 캠페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 남구 정가 동향과 맞물려 의혹과 해석이 분분하다.

앞서 현직 구청장이자 경선 주자인 김병내 후보 측은 "지역위 특정 인사가 경쟁 상대인 황경아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선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주장했다. 또 황 후보 캠프가 '지역위원장인 정 의원이 공개 지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정 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황 후보 측에 엄중 경고했지만 정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건들면 끝까지 간다", '광주 전남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싸우겠다', '남구에 상주하며 부정선거 감시단과 함께 노인일자리와 노인 돌봄, 경로당을 이용한 대리투표 가능성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겠다' 등의 글을 잇따라 썼다.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읽혀질 여지가 다분,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이를 의식했는지, 김병내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희 캠프에서는 대리

투표 등 어떠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허위사실 유포·대리 투표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반박성 글을 게시했다.

때문에 '정 의원이 지역위원장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김 후보 측에게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와 정 의원이 향후 남구 정치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 아니냐', '정 의원이 김 후보를 저격한 것이다' 등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지역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 '경선 여론조사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석 여지가 어디 있겠느냐. 구청 뿐만 아니라 지역구 곳곳을 다니며 대리투표가 명백히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리며 공정 경선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의도나 취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남 기자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